

농업 박물관 소식

NAMUK MAGAZINE
2026. SUMMER + VOL.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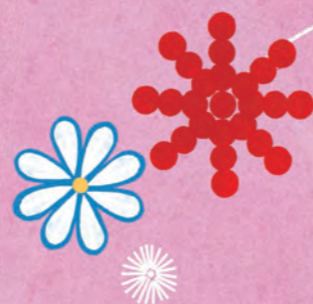


꽃을 빚어, 풍류를 담다

국립농업박물관



이번 여름호의 주제는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유물인 꽃 모양 청자 잔·반침과 국화문 합입니다. 사진을 봤을 때 은은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청자의 비색과 꽃을 형상화한 문화재의 아름다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유물을 현대적인 일러스트로 재해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도 들국화의 형태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들국화는 높은 빌딩들로 가득한 도시 안에서도 쉽게 발견하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먼 시대와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국화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패턴과 감각을 담은 일러스트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처럼 자연 그대로의 존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고려시대 청자가 지닌 섬세한 도자기 기술과 예술성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다시 풀어내는 과정은 무척 흥미롭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머무는 박물관

- 04 **작가가 담은 박물관**
꽃이 머무는 시간
- 08 **유물이 품은 이야기**
풍류를 품은 고려청자,
우리 품으로 오기까지
- 12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
그 일상을 농업의 꽃으로 피우다
- 16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
울진금강송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
- 20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
<금강송 곁에>,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시간

함께하는 박물관

- 22 **다시 보고 싶은 이야기**
꽃과 나
영화 <디올 앤 아이>를 보며
- 24 **내일을 여는 사람들**
박물관의 안전한 하루를 지키는 숨은 히어로
국립농업박물관 방재매니저
- 26 **지금 박물관에서는**
22,568명의 하루를 준비하며,
꼬마농부의 컬러 팜 대모험 기획기
- 28 **오늘 우리들**
- 박물관 소식
- 함께하는 농업 전시 공간이 보낸 편지
- 30 **독자 이벤트**
- 31 **선조들의 레시피**
밀전서과

여름호

NO. 15
2026 Summer

발행인 오경태
편집인 임성규
기획·편집 한동수, 권민석, 김효정
디자인·제작 반디컴
ISSN 2951-5777
ISSN(Audio) 3091-6704
eISSN 2982-6381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처 국립농업박물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문의 031-324-9114~5
누리집 www.namuk.or.kr



꽃이

머마귀



시간



나의 꽃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한상경
『아침고요 산책길』 (샘터, 2014)





6월의 장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밝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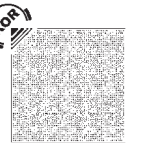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돌아난다고
6월의 넝쿨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 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이해인
『꽃꽃단상』(분도출판사, 2006)





풍류를 품은 고려청자,



우리 품으로 오기까지

글 김남희(국립농업박물관 유물아카이브실장)

잔과 잔받침 3점

荷花照水紅 風動香滿衣 坐對心自靜 塵緣忽已稀

연꽃이 물에 비쳐 붉게 빛나고, 바람이 불자 그 향기가 옷에 가득하네.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속세의 인연이 문득 희미해진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중

고려 선비들이 차 한 잔에 담은 풍류

고려 시대 선비들에게 꽃은 단순한 식물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꽃을 가꾸고 감상하는 행위를 고상한 취향이자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여겼다. 문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시를 보면, 꽃을 통해 내면을 성찰했던 선비들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선비들에게 꽃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었다.

선비들은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꽃과 함께하기를 원했다. 고려 시대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다도(茶道) 문화는 점차 우리만의 독창적인 예술 분야로 발전했다. 선조들은 차 고유의 맑은 빛깔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비취색의 고려청자를 만들어냈다. 나아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청자 다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꽃의 형상과 무늬를 새겨 넣었다.





국화문 합

한눈에 반한 꽃무늬 고려 청자

어느 날,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심미성 있는 유물을 찾던 중,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청자 탁잔과 잔받침'과 국화무늬가 정교하게 그려진 '합'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진만 보아도 청자의 은은한 빛깔과 깔끔한 형태가 돋보여, '이건 꼭 우리 박물관이 소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람객을 위한 전시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상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유물이었다.

하지만 유물이 박물관의 성격과 딱 맞다고 해서 덜컥 구입할 수는 없다. 전문가와 함께 보기 전까지는 진위 여부도, 가격의 적정선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물관에 꼭 필요한 유물이 경매 시장에 포착되는 순간부터 유물담은 분주해진다.



치열했던 경매, 마침내 우리 품으로

가장 먼저 전시 및 유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유물이 박물관 소장품으로 적합한지 엄격하게 심의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실물을 확인하러 경매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경매 유물은 실물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위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한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과 동행하여 유물의 상태와 진위, 적정 가격을 매우 치밀하게 감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감정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경매에 참여한다.

마침내 경매 당일, 긴장감 속에 수차례의 뜨거운 경합이 이어졌다. 가슴을 졸이던 순간이 지나고 낙찰을 알리는 망치 소리가 울렸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꽃 모양 청자 탁잔과 합이 마침내 국립농업박물관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물건에서 오늘날의 이야기로

실물로 마주한 유물은 도록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교했다. 이번에 소장한 꽃 모양 탁잔은 찻잔과 받침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잔 받침의 외형은 꽃의 형태를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찻잎 등을 담았던 합에는 미감을 높이기 위해 국화 무늬를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사실 도자기는 구울 때 수축하기 때문에, 뚜껑과 본체의 크기와 무늬가 자로 잰 듯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은 고난도다. 이 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려 시대 도자 장인들의 숨씨가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했는지 탄성이 절로 나온다.

훗날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이 고려청자 탁잔과 합을 마주하게 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옛 선비의 시간을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 정성껏 뒤은 차 한 잔을 청자 잔에 따르고, 은은한 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던 그 고요한 시간 말이다. 그 순간 유물은 박제된 '과거의 물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하나의 생생한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다.●

손끝에서

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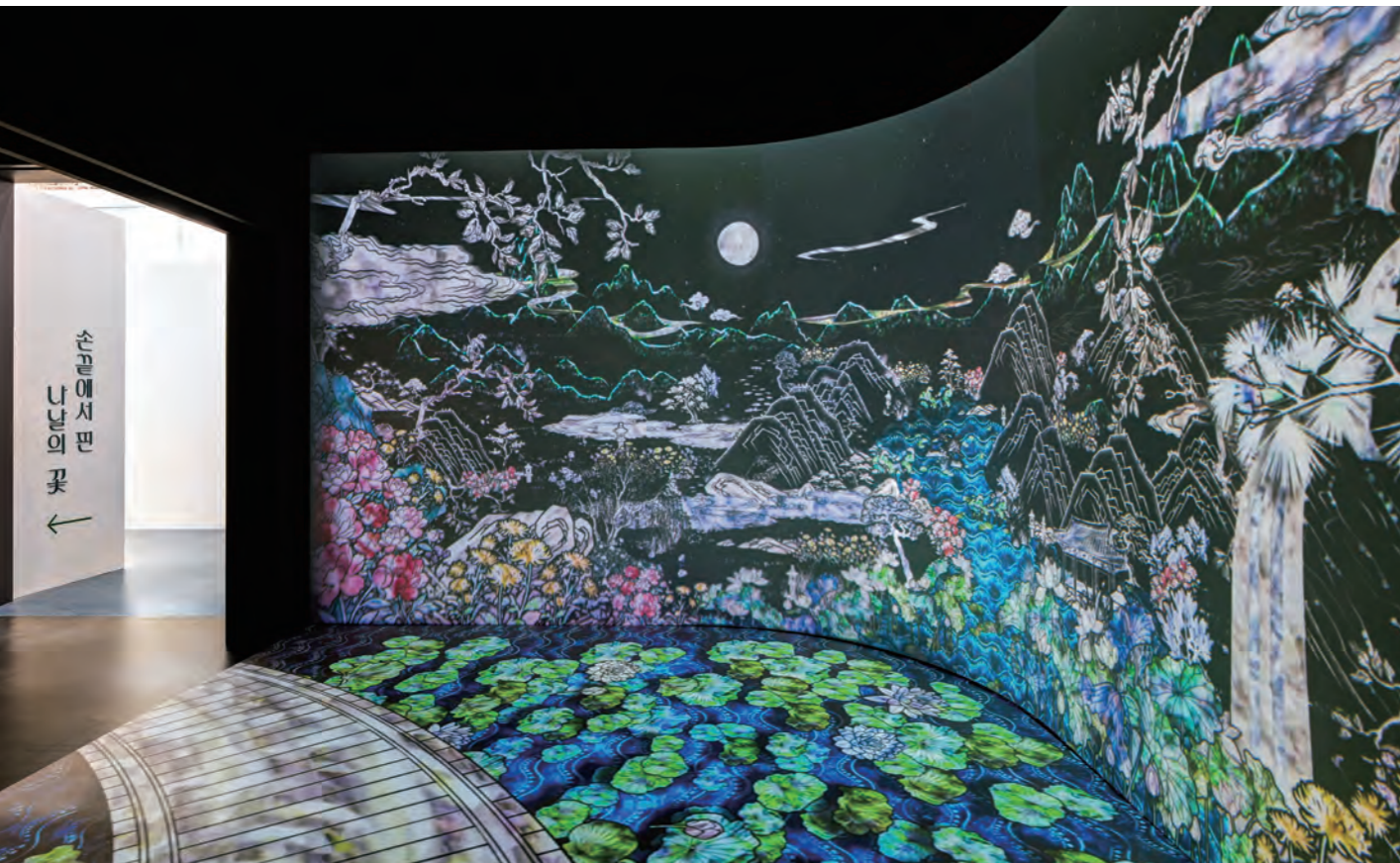
나날의 꽃,



그 일상을 농업의 꽃으로 피우다

글 이윤희(국립농업박물관 전시기획팀)

사진 김영광



이번 전시는 꽃에 관한 과거 기록부터 일상 곳곳에 담긴 꽃의 상징,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모티브로 한 전시 공간에서 동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구성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에 있다. 역지로 꾸미지 않기에 꽃과 식물들이 인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선조들의 흔적이 가득 묻어 있는 유물들 역시, 우리 일상의 구성 요소로서 늘 있던 자리에 위치할 때 가장 빛난다는 생각으로 일상 그대로의 모습을 전시했다.

1부 '가까이 머물다'에서는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장원서掌苑署 기록으로 조선시대에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전문 관직을 두어 궁궐 정원을 가꾼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도자기라는 작은 세계 속에 압축하여 곁에 두고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꽃과 새 문양으로 그린 '백자청화괴석화조문호白磁靑畫怪石花鳥文壺'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부 '울타리 안에서 피우다'에서는 사랑채와 안채 등 집안으로 들어온 꽃 문화와 상징을 보여주고자 했다. 선비들의 방인 사랑채를 장식하던 '책가도冊架圖'와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개관 이후 정성껏 수집하고 아껴온 소장품들을 모아 2026년 상반기 기획전시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을 마련했다.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식량 생산이라는 농업 본연의 역할에서 비켜서서,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가꾸어 온 '꽃'의 의미와 가치를 전시에 담고자 했다.

우리 선조들에게 꽃 가꾸기는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취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꽃을 가꾸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닦는 일종의 수양이었다. 선비들은 꽃 한 송이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품격과 질서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시관 입구에서 조선시대 선비 강희안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화훼 원예 책인 『양화소록養花小錄』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영상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꽃을 품어 안았던 선조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책거리冊距里' 속에는 책뿐만 아니라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매화와 국화,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이 함께 그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기대감이 함께 담겨 있다. 사군자도에는 쏘가리와 게도 즐겨 사용되었다. 쏘가리는 한자어 쉼어鰻魚의 발음이 궁궐의 궐과 비슷하고, 게는 단단한 등껍질인 갑甲이 과거시험의 으뜸을 연상케 하여 예부터 선비들이 가까이 한 소재다. 또한, 과거급제 후 임금에게 하사받는 어사화御賜花는 학문의 화려한 결실이자, 선비들이 가장 선망하던 꽃이라 할 수 있다. 여인들이 생활하던 안채에서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일상용품에 꽃 문양을 넣었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담은 접시와 대접, 찬합 등에 모란꽃의 문양과 함께 수복강녕壽福康寧 글자를 적어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끝으로 3부에서는 모든 백성이 함께 꽃을 즐겼던 문화를 십장생도와 화조도 등의 민화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풀과 벌레 그리고 고양이를 그린 '초충묘도草蟲猫圖'와 밭작물을 묘사한 '전가풍미田家風味'에서는 꽃과 생명의 어우러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어우러짐은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며, 농사 과정과 순환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묘사하는 꽃은 '우리의 삶과 닮은 향기가 나는 농업 이야기'다. 꽃은 씨앗에서 차가운 땅을 뚫고

화려하게 피어나, 열매를 맺은 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는 삶의 순환이나 농사의 과정과도 닮았다. 선조들의 시들지 않는 문화와 정신적 가치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준다. 향기로운 꽃이 가득한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시'라는 이름의 정원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손끝에서 피어난 나날의 꽃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
 일자: 2026년 6월 9일(화)-10월 5일(월)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



꽃은 씨앗에서 차가운 땅을 뚫고 화려하게 피어나, 열매를 맺은 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는 삶의 순환이나 농사의 과정과도 닮았다.





500년 된 금강송(울진금강소나무 군락지 내)

울진금강송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

글·사진 최종은(울진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 사무차장)

황장봉계표석이 전하는 오래된 약속

나는 선조 대부터 울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집안의 후손으로, 이곳에서 오랜 세월 삶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산과 바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자라온 나에게 울진의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특히 산을 오르며 마주하던 금강소나무의 곧고 단단한 자태는 늘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외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졌다. 나는 2009년 3월 출범한 울진금강송 세계유산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회원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술세미나를 통해 금강소나무의 가치를 알리고,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하며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울진군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해 미래 세대에게 금강소나무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으며, 수호제와 같은 전통 의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시간을 되새겨 왔다. 이러한 활동을 하며 나는 금강소나무가 단순한 산림 자원이 아니라, 울진 사람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해 온 존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특히 울진금강소나무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황장봉계표석(黃腸封界標石)'이다. 조선 시대에는 궁궐과 국가 주요 건축물에 사용되는 최고급 소나무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엄격히 관리했는데, 이를 '봉계(封界)'라 했다. 울진 지역에도 이러한 봉계가 설정되었고, 그 경계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 황장봉계표석이다.



울진금강소나무 군락지



황장봉계표석 黃腸封界標石

조선 시대 국가가 소나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봉산(峯山)'의 경계를 표시한 돌비석이다. 울진 소광리와 두천리 일대에 남아 있는 황장봉계표석은 궁궐이나 관청 건축에 사용되던 최고급 소나무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벌목을 엄격히 금지했던 구역의 경계를 나타낸다. 이 표석은 단순한 경계석이 아니라, 국가가 산림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했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실증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울진금강소나무가 오랜 세월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대형 산불의 증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번의 산불은 수백 년의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며, 병해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숲을 잠식해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울진금강소나무 군락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세계농업유산이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오랜 세월 함께 만들어온 공동의 유산이다. 울진의 주민들은 금강소나무와 더불어 살아왔고,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지켜내는 지혜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식 또한 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황장봉계표석이 보여주듯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지켜나가는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노력,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는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가장 확실한 보호의 시작이다.

대왕소나무는 사라졌지만, 황장봉계표석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약속이다. 울진금강소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숲은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이 많은 것을 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다.

울진금강소나무는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이어받아 지켜내야 할 차례다.●

울진군 북면 두천리 황장봉계표석



이 표석은 단순한 경계 표시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며, 함부로 벌목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관리했던 제도적 장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림 보존 정책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울진금강소나무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보호받아온 국가적 자산이었던 셈이다.

사라진 대왕소나무, 남겨진 우리의 책임

오랜 세월 지켜져 온 금강소나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큰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울진의 상징과도 같았던 수령 600년의 '대왕소나무'가 끝내 고사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눈, 수많은 자연의 시련을 견디며 자리를 지켜온 존재였기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 점차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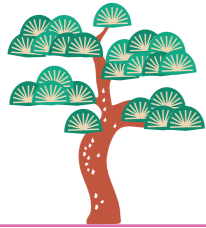
울진금강송은 나이테가 촘촘하고 심재가 발달하여 붉은색을 띠며 재질이 우수하다.



<금강송 곁에>, 공간을 넘어 이

어
지
는

시간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송 숲, 그 아래에는 오랜 시간 이어진 삶의 흔적이 쌓여 있다. 숲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 왔고, 사람은 숲을 돌보며 그 관계를 이어왔다. 2026년 국립농업박물관 첫 번째 테마전 <금강송 곁에>는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농업-공생-순환'이라는 흐름으로 풀어내고, 더 다양한 공간에서 전달하기 위해 이동전시의 형태로 기획했다.

글 장미진(국립농업박물관 전시기획팀)
사진 김세리

숲과 사람이 이어온 시간

울진의 금강송 숲은 삶의 터전이다. 일반적인 농사가 어려운 경사진 산지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새로운 방식의 농업을 전승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금강송 곁에>는 숲과 농업, 그리고 사람이 함께 이어온 시간을 담고,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삶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 많은 곳으로, 더 쉽게

이번 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 전시될 수 있는 '이동식'으로 제작했다.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전시대의 구조였다. 같은 전시라도 놓이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공간이 바뀌어도 전시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시대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나누고 다시 조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동의 용이성과 재설치를 고려해 전시대가 유연해야 했고, 어디에서든 전시의 흐름과 메시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

농업-공생-순환이라는 흐름의 이해

전시를 준비하며 금강송의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농업-공생-순환'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정리했고, 이 단어들은 전시를 이야기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산지 환경 속에서 형성된 농업의 모습, 소나무 숲과 함께 이어져 온 송이의 이야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순환하며 이어지는 구조까지, 각각의 요소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 중간중간의 체험 요소도 전시 속 흐름에 관람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한 결과물이다.



다시, 금강송 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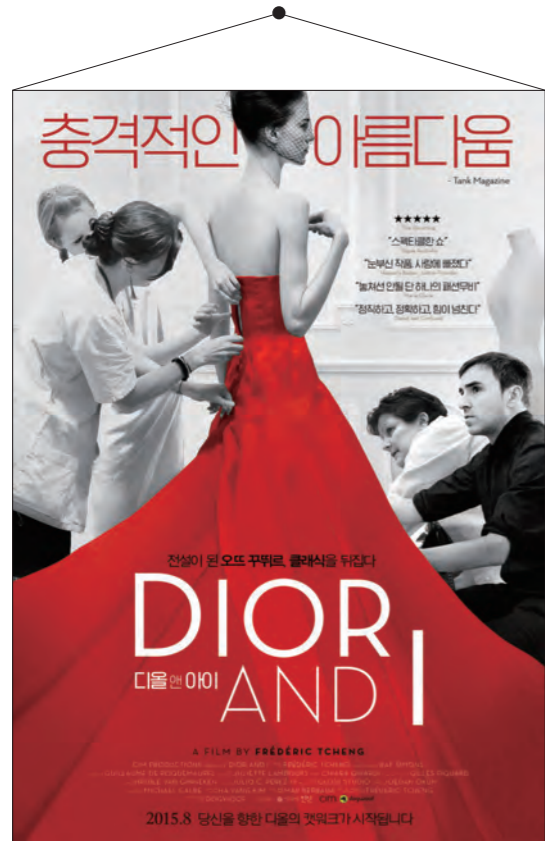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일은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에 가깝다. 어느 날은 쉽게 결정을 내렸다가도, 어느 날은 그 선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수없이 고쳐가며 전시는 조금씩 형태를 갖춰간다. 전시는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며 또 다른 관람객을 만난다. 공간이 달라져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이어진다. 금강송 숲 곁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꽃과 나

영화 <디올 앤 아이>를 보며

글 김도훈(영화 칼럼니스트)



© 영화사 진진

나는 꽃을 좋아한다. 남자가 무슨 꽃을 그렇게 좋아하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꽃을 좋아한다. 청년 시절에도 친구 생일에 꼭 꽃을 사서 갔다. 꽃을 선물하는 건 사실 대단히 섬세한 행위다. 아무 꽃이나 선물할 수는 없다. 연인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는 없다. 연인은 부모가 아니니까.

지난 18년간 꽃을 좀 멀리해야만 했다. 고양이를 키웠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참 민감한 동물이다. 많은 꽃이 건강에 해롭다. 백합, 튜립, 히아신스, 은방울꽃은 고양이에게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꽃가루를 약간만 흡입해도 위험하다. 국화나 데이지 등 국화과 식물도 해롭다. 카네이션, 수선화, 철쭉, 아이리스, 수국, 라벤더도 안전하지 않다. 장미는 의외로 괜찮다. 그래서 지난 18년간 내 집에는 장미만 들었다.

사실 남자도 꽃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척하지 않을 뿐이다. 꽃을 좋아하는 건 어쩐지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져서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꽃은 아름답다. 자연이 창조해 낸 수많은 것 중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거의 없다. 나는 대학 시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영 마뜩찮았다. 물론 사람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꽃보다 아름다울 순 없다. 사람은 아름다운 곁에 아름답지 않은 속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꽃은 그렇지 않다. 겉과 속이 똑같이 아름답다. 그러니 남자들도 이젠 남성성의 위협 같은 거 느끼지 말고 꽃을 가까이하시길 바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나오는 영화가 있다.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인 <디올 앤 아이>²⁰¹⁵다. 라프 시몬스라는 디자이너가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받은 뒤,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첫 컬렉션을 선보이는 8주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모든 브랜드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 수석 디자이너를 뽑는다. 전통의 디자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 영화사 진진

위해서다. 디올은 드레스 한 번 만들어보지 않은 남성복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를 선택했다. 모두가 걱정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만난 탓이다. 라프 시몬스는 첫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옷은 그렇다 치자.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 옷은 잘 만들 것이다. 문제는 런웨이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새로운 디올의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프 시몬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다. 꽃이다.

라프 시몬스는 파리에 위치한 거대한 빈 저택을 생화로 채웠다. 모든 방, 모든 복도, 모든 벽과 천장을 살아있는 꽃으로 채웠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모델인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꽃으로 가득한 저택을 보며 감탄을 내놓은 장면이 등장한다. 아무거나 보고 감탄하지 않는 패션계의 악마마저 찬탄하게 만든 것이다. 그가 만든 디올의 드레스도 꽃 같은 자수와 프린트로 가득하다.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럽다. 꽃을 사랑하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천국에 가까운 장소이자 순간이었을 것이다.

꽃을 선물하는 순간, 디올의 런웨이처럼 꽃향기가 온 집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탁드린다. 꽃을 두려워하지 말자. 꽃을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꽃을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가끔 광화문에서 정장을 입은 채 작은 꽃다발을 사 들고 가는 젊은 남자들을 본다. 드물게 본다. 너무 드물다.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나처럼 늙은 남자가 더 문제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꽃을 선물한 것이 언제인가? 이십 년 전 연애할 때라고?

이 글을 읽고 나면 곧바로 근처 꽃가게에 가시라. 카네이션 말고 장미나 작약을 사시라. 향이 가장 강한 꽃을 사시라. <디올 앤 아이>처럼 집을 모조리 꽃으로 장식할 수는 없다. 요즘은 꽃 가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순간, 디올의 런웨이처럼 꽃향기가 온 집을 채우게 될 것이다. 꽃은 사랑이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은 화훼농가의 협찬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박물관의 안전한 하루를 지키는



숨은 히어로

국립농업박물관 방재매니저

박물관의 하루는 관람객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일상이 안전하게 이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의 손길이 필요하다. 전기와 기계, 소방, 공조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 상황에 대비하며 박물관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바로 방재매니저다. 여러 방재매니저 중 김이형, 석경욱, 오운택, 조유필 매니저를 만나 박물관의 안전한 하루를 어떻게 지키는지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봉재석

관람객과 유물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

방재는 말 그대로 재난을 미리 막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국립농업박물관 방재매니저들은 전기·기계·소방·공조 설비를 점검하며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의 하루는 점검으로 시작된다. 하루 세 차례 2인 1조로 박물관 내 시설을 점검하며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업체와 협의해 빠르게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상은 누수나 기계 설비 문제입니다. 설비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보니 통신 오류가 생기거나 설비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관람객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물관의 방재 업무가 일반 시설 관리와 다른 점은 ‘유물 보호’라는 역할이 더해진다는 데 있다. 특히 전시관과 수장고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온습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실내 환경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방재매니저들은 공조 설비와 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 내부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온도와 습도가 계속 변하면 유물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항온항습에 특히 유의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지키는 사람들

방재 업무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찾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원 간 협업이 중요하다. 실제로 결로로 인한 누전이 발생해 곤충실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니저들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곤충실 설비가 멈추면 관람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했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면서 점검과 협업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방재매니저의 일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박물관에 항상 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관람객은 이들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바로 그 ‘평범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방재매니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시설과 환경을 살피고 있다.

“방재 업무의 가장 큰 보람은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일입니다.”

방재매니저의 일은 사고가 발생한 뒤보다 그 이전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물관의 안전한 하루를 준비하는 것. 국립농업박물관의 평온한 일상은 오늘도 이들의 손길 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



방재매니저가 알려주는 박물관 관람 시 알아두면 좋은 안전수칙

“비상구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김이형 매니저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움직여 주세요!”

석경욱 매니저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단순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기보다 안내에 따라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탈 때 주의하세요!”

오운택 매니저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함께 이동하거나 주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선을 파악해 주세요!”

조유필 매니저 박물관 구조가 넓고 전시 공간이 다양하다 보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출입 경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구와 이동 동선을 미리 확인해 두면 훨씬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22,568명의 하루를 준비하며, 꼬마농부의 컬러팜 대모험 기획기

5월 5일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立夏}'이자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을 주제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박물관을 7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이를 탐험하며 농촌 마을을 알록달록 생명의 색으로 채워가는 <꼬마농부의 컬러팜 대모험>을 준비했다.

글 박미옥(국립농업박물관 문화사업팀장)

사진 일상예술창작센터, 김세리



구역별로 색깔과 특색이 있는 행사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간마다 서로 다른 색깔과 특색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관람객들이 박물관 곳곳을 이동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문 광장은 박물관의 주요 출입구인 만큼 강렬한 첫인상을 주고 싶었다. 커다란 농기계 포토존을 조성해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관람객에게도 국립농업박물관만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했다. 각 공간은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과 농촌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린이들이 박물관 곳곳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컬러팜 대모험'을 완성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중앙홀 공연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인 곳은 전시동 중앙홀이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글링·마술쇼와 풍선아트 공연이 진행됐다.

사실 지난해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는 대회의실에서 공연을 운영했다. 그 때문에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았다. 올해는 더 많은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중앙홀에 무대를 마련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이 큰 호응을 얻으며 중앙홀은 공연 시작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저글링 공연자가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 지켜보거나, 어떤 풍선 작품이 탄생할지 몰입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다. 공연 참여자를 모집할 때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 모두가 "저요, 저요!"를 외치며 손을 번쩍 들었고, 공연 내내 물개박수와 웃음소리가 중앙홀을 가득 채웠다. 공연을 보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낸 순간들이야말로 이번 어린이날 행사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수많은 협력으로 완성된 어린이날

행사 당일 관람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기관과의 협력 과정이 있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수차례 전화를 드리고, 직접 찾아가 담당자들을 만나며 행사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때로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출장길에 오르기도 했고, 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논의하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주)대동은 트랙터와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고,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은 유기농공주스를, 수원여자대학교는 페이스페인팅과 허브 향기 체험을 지원했다. 수원권선경찰서, 수원문화재단,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대한잡사회 등도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보태 주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고, 많은 체험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었다.



행사 기획을 위해 팀원들과 늦은 밤까지 고민하고 준비했던 시간은 어린이들의 웃음으로 보답받았다. 하루 동안 22,568명이 박물관을 찾아 주었고,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해 준 덕분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수많은 기관과 사람들의 협력과 소통이 모여 완성된 축제였다.●



박물관 소식

국립농업박물관 관람객 200만 명 달성

국립농업박물관은 지난 4월 8일 200만 번째 관람객 방문을 기념해 관장이 직접 축하 인사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200만 번째 관람객은 수원에 거주 중인 황선희 씨와 손자 나정우 어린이(3세) 가족이다. 황선희 씨는 “아이가 어린이 박물관과 식물원을 좋아해서 아침부터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200만 번째 관람객이 되어 기쁘고, 손자가 박물관과 함께 성장해 온 것 같아 더욱 뜻깊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업무협약

국립농업박물관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계 우유의 날(6월 1일)을 기념해 체험형 전시 <Go Go, 오늘은 내가 우유>를 개막하여 관람객들에게 국산 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는 미래세대 농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함께하는 농업 전시 공간이 보낸 편지

from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 누리집 바로가기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은 우리 삶의 뿌리인 농업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교육·전시 공간이에요. 농업역사관, 농업현대관, 스마트농업·스마트팜관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농업과 농촌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선조들의 지혜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저희는 도시민들에게는 점차 사라져가는 농촌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걸어온 변화와 발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요. 농업·농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에서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세요.

함께하는 농업 전시 공간이란?

국립농업박물관이 전국의 농업·농촌 관련 전시관과 함께 만드는 공동 교류홍보 플랫폼입니다.

7~9월 국립농업박물관 일정

전시 행사 교육 공지

월간 일정표 바로가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일정이 있다면 누리집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전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

일자 '26. 6. 9. ~ 10. 5.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
내용 장원서 설치 560주년을 맞아 우리 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농업 속 화훼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전시

● 2026년 국립농업박물관 테마전②

일자 '26. 7. 7. ~ 9. 27.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중앙홀
내용 사람과 동행하던 소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통해 오늘날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

● GO GO! 오늘은 내가 우유

일자 '26. 5. 30. ~ '27. 12. 31.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교육동 문화공간 on
내용 관람객인 어린이 스스로가 우유가 되어 우유의 탄생부터 가공, 유통 과정을 체험해 보는 전시

● 제주밭담 재현 야외 전시

일자 '26. 9. ~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다량이논밭
내용 다량이논밭 내 제주밭담 재현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야외 전시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교류전시 <탄수화물 연대기>

일자 '26. 3. 27. ~ 7. 3.
장소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내용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식량정책 및 식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
* '25년 하반기 기획전시 재구성

● 기획전 연계 강연(2회차)

일자 '26. 7. 10.(금), 14:00~16:00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
내용 2026 국립농업박물관 소장품전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 연계 명사 초청 강연(공예분야)
강사 장경희(동국대학교, 前 문화유산위원)

● 우유 연계 체험형 전시 연계 프로그램

일자 '26. 7. ~ 8.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교육실
대상 유아 단체 및 자녀동반 가족 10팀(20명)
내용 우유에 대해 배워보고, 연계 진로 교육 및 요리 프로그램 진행

● 과학농사체험 <논 위의 파일럿>

일자 '26. 8. 22.(토)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다량이논 및 전시동
내용 다량이논 드론 방제 시연 및 방제 관련 체험

● 청소년 단체 교육 <NAMUK TIME SLIP>

일자 '26. 4. ~ 11.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및 교육동
대상 청소년 단체
내용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주요 유물 및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교육

● 농생명고 협업 교육

일자 '26. 4. 18. ~ 11. 28., 매주 토요일 11:00~11:30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수직농장 교육실
대상 초등(매월 1~3주), 중등 이상(매월 4주)
내용 스마트팜의 기초 이해와 수직농장 수확물을 활용한 나만의 미니 스마트팜 만들기

● 농업 농촌 활력 교육

일자 '26. 4. ~ 10.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교육실
대상 성인(8세 이상 동반 가능)
내용 박물관에서 농업인이 들려주는 생생한 농촌 이야기를 듣고, 미리 맛보는 농촌 체험(5가지 테마)

● 문화상품 공모전

일자 '26. 6. ~ 10.
대상 개인 및 법인(기업, 단체) 누구나
내용 국립농업박물관 대표유물을 주제로 한 문화상품 공모전

이벤트

🔍 감상평 보내기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의 감상평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독자께서 감상평을 작성하기 위해 내어주시는 잠깐의 시간은,
『농업박물관 소식』의 성장을 돕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의견을 보내신 5분을 뽑아서 **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 1 스마트폰으로 오른쪽 QR 코드 스캔
 - 2 이번 호 감상평 작성 후 제출
- * 『농업박물관 소식』 뉴스를 구독하면 당첨 확률 상승!



📅 참여 기간

2026년 9월 6일(일)까지
* 당첨자 발표: 9월 11일(금), 당첨자 개별 통보



📖 지난 호 독자 감상평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저는 취재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립농업박물관 소식지를 자주 봅니다. '지금 박물관에서는' 코너에 실린 글은 마치 봄이 찾아온 박물관 풍경 속을 천천히 걷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작가가 담은 박물관'은 시와 사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소식지는 저에게 시민기자로서 시야와 역량을 키워주는 소중한 매체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과 여유를 누리게 하는 작은 힐링 수첩 같기도 하지요. - **윤재열** 님



영화 <집으로>를 다시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상우와 할머니의 마지막 장면에서 느낀 감정은 정말 깊고 진한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억과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죠. 그 시절의 순수함과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가 주는 감동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더 많은 감동적인 영화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 **장우익** 님



요즘 시로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번 소식지에 실린 '도록'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도록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전시를 다시 한번 펼쳐 보이는 또 하나의 전시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담긴 고민과 정성이 느껴져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약자 어린이를 위한 촉감형 점자 도록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보는 전시'를 넘어 '만질 수 있는 전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일회성이었지만 책을 만들어보며,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책을 만들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 **양희경** 님



여름을 달게 식히는 법 밀전서과 蜜煎西瓜

* 시를 활용한 일러스트입니다.

밀전서과(蜜煎西瓜)는 수박의 청량함에 꿀과 향신의 풍미를 더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여름 음식입니다. 속을 도려낸 수박 안에 꿀과 계피, 산초를 넣고 오랜 시간 달여낸 뒤 우물에 넣어 차갑게 식혀 먹는 방식은 단순한 과일 저장법을 넘어, 계절을 즐기 위한 조선 선조들의 풍류를 보여줍니다. 붉은 수박 과육은 달콤한 꿀을 머금으며 한층 깊은 맛을 내고, 은은하게 퍼지는 계피 향은 여름 과실에 색다른 여운을 더합니다.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맛과 향, 그리고 시원한 정취까지 함께 담아내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 밀전서과는 수박 한 통 안에 조선의 여름 풍경과 섬세한 미감을 고스란히 담아낸 여름 별미였습니다.

* 풍석 서유구는 일명 '조선의 셰프'로 알려진 조선시대 선비입니다. 여기서는 서유구가 정리한 선조들의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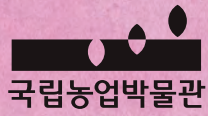
참고문헌. 풍석 서유구, 『임원경제지 정조지 4』, 정정기 역(풍석문화재단, 2020)

재료

- 수박
- 계피
- 산초
- 꿀

만드는 방법

- 1 수박의 윗부분을 자른 뒤 수박 안을 상하지 않게 파낸다.
- 2 계피와 산초를 섞은 다음 수박에 붓는다.
- 3 꿀을 넣고 줄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꿀을 붓고 수박 뚜껑을 덮는다.
- 4 탕 대접에 올린 수박을 솥에 넣어 2~3시간 정도 약한 불에서 삶는다.
- 5 익은 수박은 찬물에 식혀 냉장 보관한다.



977-2951577-009 29 ISSN 2951-5777